

대유위니아·금타 여파 고용 불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해야

박병규 광산구청장 지정 요청

노동부 월내 고용위기지역 심의

대유위니아 사태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지역 고용 환경이 흔들리면서, 광주 광산구를 중심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광산구에 따르면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대유위니아 사태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연쇄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 고용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발품 행진’에 나선 것이다.

광산구는 이미 지난 6월 23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현장 실사와 후속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박 구청장은 이번 고용노동부 방문에선 보다 앞선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선제대응지역’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실적·실업률 증가 등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미 고용위기 신호가 감지된 지역의 경우 ‘기존 지정제도’보다 유연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광산구는 이를 위해 지난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 신청서를 접수하고, 고용노동부를 직접 찾아 지역 내 고용 불안 등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대유위니아의 생산 중단, 금호타이어 화재 등으로 지역 주력기업들이 잇따라 흔들리며 고용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연쇄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신속한 개입이 절실



박병규(오른쪽) 광산구청장이 최근 송정역 앞에서 금호타이어 대주주인 중국 더블스타의 노동자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하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또 “현재 신청 중인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물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도 동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요청했다”면서 “정부도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적극 대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후 인근 협력업체를 포함한 다수 기업에서 고용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협력사는 조업 중단과 임시 휴업에 돌입했으며,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 탓에 취약계층의 생계 위험도 급증하고 있다.

박병규 청장은 앞서 지난 6월에도 광주송정역

앞 광장에서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해 더블스타 책임 촉구 1인 시위를 벌이며 시민들과 약속을 나눈 바 있다. 이번 정부 방문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형 정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산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역시 함께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향후에도 정부와의 정책적 연대를 이어가며 실적자 재취업 지원, 중소기업 고용유지 정책,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전남 ‘AX실무인재양성 협의체’ 출범…AI 인재 육성

대한상의 광주인력개발원

대학·기업·교육청 등 참여

광주·전남지역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전환(AI)을 돕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대학, 기업, 교육청 등이 포함돼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AI 분야에서 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까지 연계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광주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7일 ‘AX실무인재양성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공동 설계·운영해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식에는 전남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대학교, 한국인공지능협회, 광주시교육청,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

원이 참여했다. 유망 반도체 설계기업이자 광주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에임퓨처, ㈜에스오에스랩, ㈜에이직랜드, 슈퍼게이트㈜도 이름을 올렸다.

협의체는 기업이 제시한 현장 실무 과제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능력을 갖췄으며 기초·전공 역량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응용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로 약속했다. 또 채용 연계형 맞춤 교육과 산학 협력 프로젝트·현장 실습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대한상의의 AI 인재 양성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기업 요구 기반 PBL(Project-Based Learning) 개발, 모듈형 시범 교육 운영(1~6개월), AX 실무정규과정 개설, 기업 연계 인턴십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27년 이후에는 AX 전문 트랙을 신설하고 상설위원회 운영, 취업 매칭 고도화 등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목표는 3년간 교육과정 18개 개설, 참여기업 30개사, 교육생 330명, 산학프로젝트 50건 이상이다.

이번 협약식 참석자들은 인재 유출 방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대학과 기업 간 협력과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장수 에임퓨처 대표는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한 AI 반도체 기업으로서 광주지사를 설립하고 향후 3년간 15~20명의 소프트웨어·칩 설계 인력을 지역에서 채용할 계획”이라며 “AX실무인재협의체 참여는 숙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무상 광주인력개발원 원장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기업·지자체가 하나의 운명공동체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기관별 부족한 부분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고 교육부터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인력개발원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반도체 설계, 로봇, 클라우드 등 첨단 분야에서의 청년 취업 교육 등에 주력하고 있다. 모든 교육 과정은 전액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며 이번달 디지털 트윈, 시스템반도체, 지능로봇 3개 과정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5대은행 가계대출 1주만에 2조 가까이 증가

은행들 추가 대출규제 만지작

8월 들어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7월 말(758조9734억원)보다 1조9111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약 2730억원꼴로,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 발표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7월(1335억원)의 두 배를 넘을 뿐 아니라 6월(2251억원)보다도 479억원 많다.

만약 이 속도가 월말까지 유지될 경우, 이달 전체 증가액은 역대 최대였던 작년 8월(+9조6259억원)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이 604조5498억원으로, 6월 말(603조9702억원)과 비교해 한 주 사이 5796억원 늘었다. 7월(1466억원)의 절반 수준인 일평균 약 725억원씩 증가했다. 신용대출이 103조9687억원에서 105조380억원으로 1조693억원이나 불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8월 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6·7월보다 빠른 원인으로는 공모주 등 주식 투자, 6·27 이전 주택 계약 관련 대출의 실행, 정부의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예상한 대출 선(先)수요 등이 거론된다.

실제로 이달 들어 지투자비이오, 삼양컴텍, 에스엔시스 등의 공모주 청약에 각 3조~13조원의 증거금이 몰리기도 했다.

아울러 6·27 규제 이후 조치로서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 제한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늘어나면서 “신용대출 등이라도 일단 먼저 받아놓고 보자”는 심리가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은행권에서 나온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자, 각 은행은 약 50% 삭감된 하반기 총량 목표 안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일제히 막은 것도 같은 이유다. 하나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의 대출모집인은 현재 9월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은행 베트남 중고 오토바이 플랫폼 투자

광주은행은 “최근 베트남 최대 규모의 중고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 기업인 ‘오케이씨’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오케이씨는 오프라인 중심의 중고 오토바이 거래를 온라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 불만 해소 및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광주은행이 금융과 모빌리티 분야를 융합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생태계 확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투자는 광주은행과 JB금융지주가 함

께 진행하며, 이번 투자 체결을 계기로 오케이씨 플랫폼 내 금융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전략적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전략적 투자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오케이씨와의 협업을 통해 베트남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금호고속 강진·나주 혁신도시~인천공항 신규노선 운행

금호고속은 “14일부터 강진·나주 혁신도시와 인천공항을 잇는 신규 노선을 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노선은 매일 상·하행 각 1회 정기 운행되며 새벽 0시 30분 강진 출발, 새벽 1시 20분 나주 혁신도시 출발이다.

하행선은 오전 8시 15분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발, 오전 8시 40분 1터미널 출발로 운영된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기준으로 강진에서 4시간

30분 나주 혁신도시에서 3시간 40분이 소요된다.

예매는 ‘티머니GO’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상행은 코버스 홈페이지와 ‘고속버스터미널’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예약할 수 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전남 남부권과 혁신도시 주민들의 인천공항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가전 무료혜택” 소비자 기만…4개 상조 제재

별도 할부매매계약 체결 요구

국내 주요 상조업체가 상조 계약을 하면 무료로 가전제품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 영업을 했다가 제재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시장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거짓·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쓰면서 회원들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 매매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했다. 또 계약 만기까지 할부 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돌려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다고 봤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가전제품

을 무료로 받는 조건을 은폐·축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장명령을 부과하고, 각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 1184회)						
당첨 번호						2등 보너스숫자
14	16	23	25	31	37	4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1,910,655,600			15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0,289,411			95
3	5개 숫자일치		1,533,432			3,115
4	4개 숫자일치		50,000			155,556
5	3개 숫자일치		5,000			2,576,710

진도 곱창김·여수 돌산갯

CU, 삼각김밥 2종 출시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편의점 CU는 “진도 해역에서 자란 ‘곱창김’과 여수 특산물인 돌산갯 등을 활용한 삼각김밥 2종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제품 ‘곱창김 갯 참치마요’는 여수 특산물인 돌산갯으로 절임을 만들어 넣었고, ‘곱창김 참 닭갈비’는 닭갈비에 통깨로 만든 참기름을 넣었다.

진도 곱창김은 일반 김보다 두툽한 식감과 고소한 맛으로 삼각김밥의 주재료인 김의 풍미를 더욱 즐기 좋다고 CU는 설명했다.

김진훈 BGF리테일 간편식품팀 상품기획자(MD)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특산물 홍보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친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세인트앤드류스 매장 신규 오픈



광주신세계 본관 6층 ‘세인트앤드류스(St.ANDREWS)’ 매장에서 직원이 다양한 골프웨어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8일 세인트앤드류스 매장을 신규 오픈했다. 세인트앤드류스는 골프의 발상지이자 성지로 불리는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류스 골프코스에서 영감을 받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골프웨어 브랜드로, 가벼운 소재와 기능성 디자인이 특징이다. <광주신세계 제공>